

한해가 가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를 맞으며 신년사를 하셨습니다. 뜻깊은 사변들과 기적적인 일들이 많았던 지난해에 대한 총화와 올해에 나서는 과업에 대해 상세히 밝히시는 그이의 열정에 넘친 모습에서 사람들이 후더운 마음으로 다시금 절감한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민족의 행운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출중한 자질과 비범한 령도실력으로 나라와 민족을 이끄시는 그이의 위인상은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를 끌없이 폭발시키고있으며 민족의 양양한 전도에 대해 확신케 하고있다.

출중한 자질과 령도풍모를 겸비한 령도자는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과 존경을 받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철학과 정치경제학으로부터 첨단과학기술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풍습으로부터 건축과 산업미술, 음악과 체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 모든 령역에 조예가 깊고 능통하신분입니다. 사상리론적예지에서나 령도적수완과 령도방법에서도 비상하신 그이의 품격에 대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김정은동지는 령도자로서 지나야 할 특출한 실력과 풍모를 갖추고있으며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님의 위인적풍모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그이께서는 장군님과 함께 애국의 길을 걸으시면서 선군의 자욱을 뚜렷이 새기셨고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지도의 길도 이

어오셨다. 그 나날에 사람들속에서는 다능다재하고 령도적실력이 출중한 그이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과 똑같은분이시라는 마음속 애호와 존경심이 분출됐고 그이의 위인상을 구가하는 《발걸음》과 같은 송가도 태어났다.

지난해에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를 다녀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감동되는것이 원수님의 뛰어난 천품과 령도실력이다.

승마구락부를 돌아본 재중, 재로, 재일동포들은 이구동성으로 《일찍부터 승마술에 능한 원수님이시기때문에 그분의 기적은 단순에의 기적을 창조하는 공격적인 기질이다,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승마구락부건설도 발기하시고 구체적 인 지도를 기울이신 현명한 령도에 의해 오늘과 같이 인민사랑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102(2013)년 9월

의 승마장이 훌륭히 건설되게 됐다.》고 하였다.

김정은동지는 자기 실력으로

한 받아들이게 되어있다고 위대한 은 《김정은령도자는 통주를 비롯하여 모든 종류의 체육을 사

해박한 실력과 풍부한 자질을

은 《김정은령도자는 통주를 비롯하여 모든 종류의 체육을 사

랑하신다. 조선은 축구열풍이 강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력은 온 나라에 물아치는 체육열풍에도 미치고있다. 우리나라의 체육실태와 세계적인 체육발전수준에도 밝으신 그이의 명철한 견해와 심오한 통찰력, 구체적인 세심한 령도는 공화국의 체육발전수준을 비상히 높이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이에 대해 공화국 체육성의 한 전 문가는 지난해 우리 체육선수들이 70여차의 국제경기에 참가해 금메달 160여 개를 포함해 도합 380여개의 메달을 획득한것은 성과로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의 결과라고 했다. 조선을 방문한 이탈리아국회의 한 상원의원

한 나라다.》라고 소감을 토로하였다.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는 군령도로부터 경제와 문화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구현하는 등 전반적국가건설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실력가형의 위대한 정치가를 령도자로 모신것은 우리 민족이 타고난 행운이고 무상의 영광이다. 그 어떤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침략공세에도 끄떡없는 불패의 군력에서, 통라인민유원지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인민극장, 은하과학자거리, 창천거리와 같은 수많은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회한한 현실에서 사람들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에 대해 가슴뜨겁게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이의 위인상에 대해 로제야신문 《올라지보스토크》는 《조선인민의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진두에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다방면적인 식견, 특출한 령도실력과 숭고한 인민적덕망을 지닌 김정은령도자가 계신다. 그이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것이다.》라고 전하였다. 중국신문 《국제선구자안보》도 《김정은령도자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지도자로서 조선이라는 신비한 나라에 새로운 견해와 밝은 빛을 가져다주고있다.》고 하였다.

희망찬 새해가 닳을 올린 오늘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령도자를 따라 지나온 잊을수 없는 어제를 돌아보며 광명한 래일에 대한 확신에 넘쳐 1월의 날과 날을 보내고있다. 민족의 마음속에 감회와 희망이 큰 류다름 1월이다.

본사기자 리 설

시 김일성 김정일대원수님 축복하신다

리 준 식

단군조선시원의 백두산
선군혁명시원의 백두산
통일조선시원의 백두산

그 담력과 용맹
순결과 열정을 그대로 닮은
김정은최고사령관동지 계서
겨레는 자주통일, 강성조선
세계는 호혜, 평등, 정의의 꿈을 쫓다

수령결사옹위
이를 조국의 목숨으로 알고
수령유일중심의 일심단결
이를 민족의 운명으로 새긴
백두산 선군조선이다

세상 바람이 어떻게 불든
통일조선의 눈부신 미래
병진로선의 찬란한 목표

가 사 우리의 희망 김정은동지

리 준 식

로동당 품은
행복의 요람
대원수님들의 품
불변의 그 품 김정은동지
인민은 친근한 아버지 당신이 계서
오늘도 안녕한 삶을 누리갑시다

혁명의 진리
령도의 순결
이민위천 사랑에
불타는 심장 김정은동지

더 빨리 더 높이
온 세상에 보란듯이 펼쳐놓아
세계가 탄복하는 최첨단의 문명조선이다

혈전만리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꽃피은 이민위천 사랑의 정치
피눈물 고난의 행군속에
금성철벽으로 다지고 다진 선군정치
숭고한 동지애의 광폭정치
승리의 반석으로 새긴 김정은원수 계서
온 겨레, 온 세계가 우러르는
반제자주조선이다

불멸불후 위대한 민족의 태양
김일성 김정일 두분 대원수님
혁명의 성산 백두산 하늘에서
조선의 승리 김정은동지 고무하신다
조선의 영광 김정은원수 축복하신다

인민의 안전을 위해 삭도도 먼저 다보시며

현존했던 마식령의 천연산악지대에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이 훌륭히 꾸려져 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진 2013년을 뜻깊게 마감지었다.

인적드문 마식령지구에 스키장이 일떠선것만도 경이적이지만 스키장의 한눈우에 첫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도에 대한 이야기인 사람들의 심금을 더 뜨겁게 하고있다.

지난해 12월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시였다.

은 한해 은하과학자거리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

한 훌륭한 창조물들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인 신 그이께서는 희망날친 새해에 더 큰 기쁨이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시려고 한해의 마지막날까지 헌신의 길을 걷고걸으신것이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삭도를 먼저 타시구가 회한한 대규모스키장으로 전변되고 기적적인 건설속도인 《마식령삭도》가 창조된 유명한 교장으로 되게 되였다.

우리 인민들이 먼 후날에도 덕을 보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만년대계

조금도 손색없는 스키장시설물들을 인민들이 리용하도록 하시려는 원수님의 세심한 보살핌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마음 첫자리에 인민을 놓으시고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오랜 세월 겨울내 잠을 자던 마식령지구가 회한한 대규모스키장으로 전변되고 기적적인 건설속도인 《마식령삭도》가 창조된 유명한 교장으로 되게 되였다.

우리 인민들이 먼 후날에도 덕을 보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만년대계

의 기념비적창조물이며 문명국의 상징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완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무더운 한여름에도, 찬바람 맹쥔 겨울에도 이곳을 찾고찾으신 원수님이시였다.

우리 인민들과 세계앞에 섰포함대로 마식령스키장건설을 올해중에 끝낼수 있게 되였다고, 뜻깊은 올해를 건실의 최전성기로 빛나게 결속할수 있게 되였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은 련련히 뻗어내린 스키주로들에 메아리쳤다.

스키를 탈수 있는 기간이 오래고 교통조건도 편리한 명당자리에 러컨을 정해주시고 인민들이 마음껏 체력도 단련하고 자연경치도 부감할수 있는 멋쟁이스키장으로 완공하도록 하시였

으며 개장을 앞둔무렵 다시금 찾으신 원수님의 애민헌신의 자욱이 마식령의 산발들에 새겨져 스키장의 겨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겁게만 느껴지는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언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식령스키장 현지지도소식을 전하면서 《협준한 산악지형과 폭우, 무더위, 혹한, 국제사회 압박 등 악조건을 이겨내고 보란듯이 년내완공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에 남기신 인민사랑의 첫 자욱은 마침내 개장의 날을 안아왔고 새해의 첫기슭에서 사람들이 생기와 활력에 넘쳐 겨울을 즐기는 활무대가 펼쳐지게 한것이다.

본사기자 리 경 월



나는 고국을 자주 드나들며 기업을 하는 해외동포의 한사람이다.

고국을 배양할 때마다

다 애국의 마음도 커지고 조선민족의 일원된 긍지를 가슴뿌듯이 체험하곤 한다. 특히 공화국을 아홉번째로 찾아왔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불과 석달만에 외국방을 다시 밟는 나에게 몰라보게 달라진 고국의 모습이 안겨왔던것이다.

평양으로 들어서는데 번듯하게 일떠선 은하과학거리의 이채로운 풍경이 안겨오고 룡흥네거리에는 하늘높이 쌓기등을 이루듯 솟아난 교육자 살림집이 우리를 반겨주는듯싶었다. 그런가하면 건설이 한창이던 대규모의 세계적인 문수물놀이장이 완공되어 사람들이 즐겁게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었고 다른 나라들에 서처럼 유행해풍이 아니라 평범한 인민들이 리용할 미림승

마구락부가 문을 열어 사람들에게 생활의 활력과 랑만을 더해주고있었다.

매우 짧은 기간에 방대한 규모의 건설대상들을 하나의 손색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한다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나도 문수물놀이장에 가보았는데 설계가 깨끗하고 시공이 특이하며 어느 하나도 흠

가를 일떠세우는 고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고은은 심정이다.

조선민족의 일원된 긍지를 안겨준 공화국, 나의 친정집과도 같은 고국에 이적은 힘이나마 바치고싶다. 이것은 나만이 아닌 우리 동포기업가들의 하나같은 마음이다.

중구 절강성에서 사는 한 동포기업가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고국을 방문하고나서는 서방의 선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서 고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미려하게나마 기여하겠다는 마음을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경제강국건설에 매진하는 정든 고국인민들의 힘찬 숨결에 호흡을 함께 하며 나뻘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우려는 고국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노력의 열매라고 생각했다.

심정송(중국단둥조선족 기업가협회 부회장)

건설은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선이다. 현시기 나라의 국력과 문명수준을 과시하고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중요하게 건설부문에 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그 폭과 깊이, 속도와 질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장엄한 대건설의 력사를 펴시고 애민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해 지난해에 이 땅에는 장엄한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졌다. 삼복의 무더위와 장마비, 한겨울의 맹쥔 추위를 가림없이 건설현장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모든 건축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손

색없이 꾸리도록 세심한 지도를 기울이신 그이의 보살피심속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관,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기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건설부분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건설의 최전성기에서 새로운 변영기이로!
이것은 하나의 목표를 밝혀주시여도 최상의 수준에서 제시해주시고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애국애민과 진취적인 안목, 통이 큰 작정으로 나라의 변영기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펼수 있는 구상이고 의도이다.

지난해 12월 조국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없는 건설부분일군대강습을 열도록 하시고 한해가 다 저물어가 는 12월말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신데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 건설의 최전성기를 새로운 변영기로 이어나갈데 대한 위대한 구상을 펼쳐치시는 그이의 기록

한 모습을 보이며 온 나라 인민은 2014년에 펼쳐질 건설의 새로운 변영기와 더불어 인민의 꿈과 리상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것을 더욱 굳게 확신하고있다.

공화국의 근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이 땅우에 기여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문명국을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김 강 철